

제 목	국 문	보건관리형태에 따른 산업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영 문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ccording to Types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성희 <sup>1</sup> , 신혜련 <sup>1</sup> , 김상우 <sup>1</sup> , 우극현 <sup>1</sup> , 박완섭 <sup>1</sup> , 박재용 <sup>2</sup>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1</sup>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sup>2</sup>		
	영 문	Sung Hee Kim <sup>1</sup> , Hae Ryeun Shin <sup>1</sup> , Sang Woo Kim <sup>1</sup> , Kuck Hyeun Woo <sup>1</sup> , Wan Seoup Park <sup>1</sup> , Jae Yong Park <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up>1</sup>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2</sup>		
분 야	환경 보건	발 표 자	김성희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1990년 이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점차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집단보건관리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 사업장내에서 상주하는 전담보건관리자에 의해 보건관리를 받고 있는 근로자군(이하 개별보건관리군)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의해 집단보건관리를 받거나 받은적이 있는 근로자군(이하 집단보건관리군)으로 구분하여, 보건관리형태별로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태도·실천의 정도를 비교하고, 아울러 집단보건관리군내에서 지속적 사업으로서 집단보건관리가 시행될 때 관리기간에 따라서 지식·태도·실천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구미공업단지내의 50인-299인의 영세중소 섬유제조 사업장중에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1,13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장 건강검진시 조사자가 이를 확인 및 보충하였다. 대상 근로자는 집단보건관리군 694명, 개별보건관리군 444명 이었다. 설문내용은 근로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그리고 '산업보건법규,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유해물질 취급, 위생시설의 구비와 사용, 연소자 및 부녀자 노동의 위험, 환기시설의 설치와 작동, 보호구 사용, 직업병예방, 정기건강진단, 사업장보건관리의 산업보건에 관한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별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로 지식의 정도는 1점, 태도와 실천의 정도는 각 각 2점으로 점수화하여 지식은 10점 만점, 태도와 실천은 각각 20점 만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보건관리 형태별 근로자군의 일반특성은 <math>\chi^2</math>-test로 비교하고, 일반특성별 보건관리 형태에 따른 지식·태도·실천의 평균점수는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기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p>				

### 3. 연구결과

먼저, 근로자의 보건관리형태에 따른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 정도를 비교하고 다음으로 집단보건관리군 694명 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보건관리 기간이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보건관리형태에 따라서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 평균점수는 개별보건관리군에서 모두 높았으나 실천의 점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중회귀분석의 결과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총근무기간이었고,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였다.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유무, 총직장근무기간이었고, 연구의 목적인 보건관리형태는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집단보건관리군에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 보건관리기간(개월수)은 대상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었다.

### 4. 고찰

보건관리형태에 따른 두가지 대상군 사이에는 대부분의 일반특성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지식, 태도 및 실천의 평균점수들은 지식, 태도 및 실천의 평균점수가 모두 개별보건관리군에서 높았으나 실천의 평균점수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 및 총직장근무기간 등의 일반특성들이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보건관리군에서는 지식, 태도, 실천의 정도는 모두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집단보건관리군에서는 지식의 정도는 30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태도 및 실천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정도가 증가 하였다. 두 집단에서 모두 현직장근무기간과 총직장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 태도, 실천의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총직장근무 기간은 지식, 태도, 및 실천의 증가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변수 중 하나 였다.

전체 근로자 1,38명을 대상으로한 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보건관리형태는 지식, 태도 및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교육수준, 결혼유무, 총직장근무기간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 남자, 총직장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식, 태도 및 실천의 점수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박정일 등(1994)에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보건관리군 694명만을 대상으로 한 중회귀분석에서는 대상 근로자들의 집단보건관리기간은 지식, 태도 및 실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